

社說

행정사무감사 제대로 하라

포천시의회가 6월24일부터 7월9일까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일정 기간을 정하여 그 해의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포천시의회는 행정자치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를 요구하고 그 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포천시장이 국회의원 출마를 이유로 지난해 12월 사퇴하여 공석인 상태에서 특별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데다가 6월5일 취임한 신임 시장은 감사대상 기간 업무와의 관계가 없어 빠빠진 분위기다.

또한 신임 시장 취임 후 인사발령으로 해당 실과소장의 경우, 업무과외에 제대로 안된 경우가 있어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는 과정이 답변을 제대로 못하자 담당직원이 느닷없이 일어난 답변하는 바람에 감사중지가 되기도 했다. 발언권을 얻지도 않은 상태에서 담당 공무원이 답변하는 것에 대해 질의를 한 의원은 물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도 유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유감을 표시해도 담당직원의 사과는 이루어지지 않아 의회를 무시하는 집행부의 오만함을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비등하다. 감사장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자세도 교육이 안된 집행부에 대해 포천시의회는 지방의회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교육 실시를 요구해야 한다.

감사를 하는 의원들이 각 부서에 감사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해당 의원만이 질문하는 형식의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동료 의원이 감사를 하는 도중에도 제대로 감사를 하기 위해 다른 의원도 그 사안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질의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 집행부가 긴장하고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빠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의원들은 본인이 요구한 감사대상이 아니면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이 앉아서만 따분해지고 그래서 자리를 이탈하는 의원들이 나타났다. 선거법 개정으로 8명으로 의원이 줄었고 의장을 제외하고 7명의 의원이 감사를 실시하는데 2~3명만 자리를 비우게 되니 감사장 분위기는 그야말로 열렁하다.

감사권이 남용될 때 지방행정이 마비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올 정도로 본래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것이 의원으로 선출해 준 시민들에 대한 보답이다. 행사장에서 자주 만나는 정치인보다는 포천시 살림살이에 더욱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1년에 한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민들의 궁금증을 풀어 줄 수 있는 의원을 만나고 싶다는 것이 포천시민들의 바람이다.

전임 시장이 추진해 온 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를 기대하는 시민들의 뜻을 무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얼마나 많은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시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견제할 수 있는 포천시의회가 되기를 바란다. 행정사무감사 제대로 하라.

포천신문 http://www.ipcs21.com
등록번호 경기 다 50007 2000. 8. 18 등록
발행처: (주)포천신문사 경기도 포천시 동교동 213-4 고은 B/D 구로로: 월 5,000원 / 년 50,000원 / 평생 500,000원
사훈: 주인정신(主人精神) 정론직필(正論直筆) 문화창달(文化傳達)
대표전화 (031)542-1507
팩스 (031)541-911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주간신문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특별인터뷰 영북노인대학 학장 박동규

“노인대학 평생교육차원 법제정 시급하다”

영북노인대학 경영목표는 존경받는 노인 위상의 정립



“서장원 시장이 당선되는데 노인층에서 크게 작용한 것은 서 시장이 노부모를 잘 모신다는 평가 때문이며 앞으로 노인대학에도 많은 지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영북노인대학 박동규(72·사진)학장은 “포천의 노인대학은 시설이나 내용이 없는 껍데기 노인대학이라며 최소한 강의실 시설만이라도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인복지에 대해서도 노인회를 통해 1년에 1천500만원을 지원하는데 1만6천명의 노인구로 나누면 1천원도 안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니 안타깝다. 박 학장은 노인들을 그래도 대접하는 데는 서울이하철 밖에 없다고 한다. 무료 승차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경상북도 문경이 포항인 박 학장은 현재 39년째 포천에서 살고 있으며 영북종합고등학교에서 교장으로 정년퇴임후 영북노인대학 학장으로 5년째 봉사하고 있다. 공무원문학 수필로 등단한 박 학장은 11년간 중등학교 교장으로 학교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영북노인대학을 알차게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영북면의 경우는 지역적 특성으로 노인들이 대부분 농사일을 하고 있어 노인대학 강의시간에 잠깐 공부하고 다시 논밭으로 가고 있다.

박 학장은 노인대학 운영에 있어 가장 시급한 것은 노인대학도 평생교육차원에서 법 제정이 요구되고 있으며 건강활동, 현장실습, 잠재력 재개발, 여가선용, 취미활동, 가무활동, 현장실습, 봉사활동, 관람견학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해야 한다.

특히 박 학장은 노인대학은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노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며 신뢰와 존경

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적응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고 고령사회에서 건강하게 장수를 누리고 가족과 이웃 간에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초점을 맞추어 교육과정이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북노인대학의 교육과정은 노인문제 전반에 대해 교양과목 30%, 건강관리 20%, 노후생활 20%, 노인윤리 20%, 기타 10%로 비율로 편성, 운영되고 있다.

현재 제13기 65명이 3월18일 입학식을 갖고 공부하고 있다. 영북노인대학의 경영목표는 존경받는 노인위상의 정립에 있고 경영방침은 교육여건의 개선 확충, 다양한 교육과정의 운영, 바른 노인위상의 정립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실천지침으로 건강(편안하게 생활하기), 학습(보람으로 책읽기), 근로(부지런히 일하기), 취미(즐거움 취미 찾기), 봉사(기쁨으로 남 돕기)를 실천하고 있다.

영북노인대학은 1996년 개교하여 지난해 제12기 수료생 63명을 포함해 모두 880명이 수료생을 배출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낙농가 문제 지속적인 관심 갖겠다”

한나라당 민생탐방단 동교동 현장방문



김영우 국회의원(한나라당, 포천·연천)은 6월26일 낮은 원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낙농업 종사자들의 고충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한나라당 농촌지원단 낙농대책팀과 함께 동교동에 위치한 낙농가를 방문했다.

김영우 국회의원(한나라당, 포천·연천)은 6월26일 오전10시, 낮은 원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낙농업 종사자들의 고충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한나라당 농촌지원단 낙농대책팀과 함께 포천시 동교동에 위치한 낙농가를 방문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한나라당이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생활현장에 직접 들어가 국민들의 어려움을 전해 듣고 국정에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이뤄졌다.

한나라당 민생탐방단 농어촌 지원단 낙농대책팀은 그 첫 번째 일정으로 김영우 의원의 지역구인 포천지역을 선정했다.

김영우 의원은 낙농인과의 만남에서 “민생과 경제 살리기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염원에 국회가 보답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며, “국민과 역사 앞에 무한 책임을 느끼고, 국민생활현장으로 들어가 국민의 귀로 듣고,

국민의 눈으로 보고, 국민의 마음으로 일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낙농가가 처한 문제점들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이며, 조속한 해결을 위해 낙농인 여러분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농어촌지원단 낙농대책팀은 김영우(포천·연천)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성수(양주·동두천) 의원, 이준식(비례대표) 의원 그리고 한나라당 여의도 연구소 주용학 연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어린이통학버스 차량 운전자 안전교육

포천경찰서 교통법규 준수 등 운행질서유지 당부



포천경찰서는 6월27일 포천경찰서 강당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통학버스차량 운전자 상대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

포천경찰서(서장 양종필)는 6월 27일 포천경찰서 강당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통학버스차량 운전자 상대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위 허영환)이 참석한 운전자 80명에게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시 교통법규 준수, 보호자 탑승 등 운행질서 확립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교육은 교통관리계장(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노인장기요양보험 7월1일부터 실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월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한다.

비용은 국가와 사회가 함께 마련해 주고 있으며, 건강보험 가입자는 7월부터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요양서비스를 받는 분들은 비용의 일부를 직접 부담해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치매, 중풍, 파킨슨 등 노인성질환으로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 세수, 목욕, 배변처리, 식사, 세탁, 주변환경정리, 간호처치 등을 필요하게 되었을 때 본인의 가정이나 요양시설을 이용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다양한 서비스로는 재가 서비스로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간호·단기보호·복지용구 구입대여 등이다.

시설서비스로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장시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기능회복 훈련 등을 제공하고 있다. 특별 현금서비스(가족 요양비)로는 장기요양 수급대상자가 도서·벽지 거주 등의 사유로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해당하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았을 때 현금으로 장기요양 수급대상자에게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번으로 연락하면 된다.

정영갑 기자 jpk61@paran.com

포천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유비쿼터스 로봇 체험

포천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는 6월28일 청소년들에게 21C 유비쿼터스 시대에 걸맞은 과학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제2의 이소연씨 같은 인재를 육성하고자 ‘놀토야카데미 청소년 유비쿼터스 로봇 체험’을 실시했다.

이날 로봇 체험 행사에는 관내 중학교 1~3학년 40여명이 로봇의 회로 원리, 납땜의 기초 작업, 전자회로의 작동 원리 등을 교육받고 로봇(무빙LED)을 직접 만들어 참가

한 청소년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청소년들은 “로봇 만들기는 진부하고 어렵다고만 생각했는데 직접 로봇을 만들어 보니 신기하고 재미있었다”고 말했다.

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문화·예술·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언제나 바른뉴스! 포천신문

www.ipcs21.com

포천신문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체육 및 시사 관련 사항을 포함한 포천시를 중심으로 인접된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의 시·군정을 해설·소개하고, 시·군내의 각종 행사와 유명 인사를 소개하며 주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생활정보를 수록,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정기구독 및 평생구독

정기구독 및 평생구독을 신청해 주신 애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8년 6월 20일 ~ 6월 29일까지) - 포천신문 임직원 올림 -

구독료 입금계좌 : 농협(585-17-004213) 예금주 : (주)포천신문사

최근발행현황

- 2008. 6. 20 포천신문 제416호 발행
2008. 6. 30 포천신문 제417호 발행
2008. 7. 10 포천신문 제418호 발행예정

